



새로운 발 감각 검사기구

업무량이 많고 바쁜 병원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발 감각 검사를 집에서 쉽게 감각기구(sensory kits)로 자가 검진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주치의는 당뇨병 환자의 발에 신경 손상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많은 다른 검사들에 밀려서 발 감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제는 당뇨병인 스스로 가정에서 자신의 발 감각 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새로운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하기 쉽고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간단한 검사기구, 필라멘트

당뇨인들 중 과반수 이상이 발에 신경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 '방어 감각의 손실'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다. 당뇨병인이 방어 감각을 잃어 버리면 보통 물집이나 염증 상태를 느낄 수 없고, 또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나 발이 갈라져서 생기는 아픔과 염증 등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된다. 초기에는 문제가 아주 적게 시작되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에 궤양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발을 절단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당뇨인이 방어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 발에 알맞은 신발을 신고, 날마다 붉은 반점이 생겼는지 아니면 조그만 갈라짐이라도 생겼는지 살펴 보고, 절대 맨발로 다녀서는 안된다.

당뇨 주치의에 따라서는 발에 감각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주치의가 나일론 필라멘트로 당뇨병인의 발에 특정 부위를 찌르면서 검사를 한다. 이 필라멘트는 10G의 자극을 주면 구부러진다. 환자가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자극에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면, 방어 감각을 잃은 것이다. 미국당뇨병협회(ADA)에 따르면, 이 '필라멘트 검사법'은 발에 관한 종합 검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며, 당뇨병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번 건강 관리 전문가에게 발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카빌레시에 있는 Gillis W. Long Hansen's 의료센터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당뇨 전문 의료진들은 이러한 족부의 감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은 환자 스스로가 발 감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감각 검사기구 시험

이 연구를 위하여 서로 각각 다른 주에 사는 9개의 당뇨센터에서 196명의 당뇨인이 “자가 감각 검사기구(self-testing sensory kits)”를 사용하고 보고하기로 했다. 자가 감각 검사기구는 나일론 필라멘트, 사용방법 안내서와 검사기구를 사용하는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 등이 함께 세트 되어 있다. 참여한 환자들은 다음 외래진료 전에 가정에서 자가 감각 진료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 외래진료에서 환자들은 건강 관리 전문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발 검사를 받았다.

자가 감각 검사기구를 받은 당뇨인 중 145명이 자가 검사를 하였고,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여한 당뇨인중 97%가 필라멘트 검사 방법이 사용하기 쉽다고 하였다.

■ 참여한 당뇨인중 69%가 필라멘트 검사를 혼자 했다고 한 반면에, 31%는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 53명의 당뇨인(36%)이 감각 손상을 입었고, 그중 34명의 당뇨인은 이 연구 검사 이전에 이미 감각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은 모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원한 환자들이 자가 검사한 결과 중 87%가 건강 관리 전문요원들이 직접 재검사한 결과와 동일함을 보였다. 건강 관리 요원들이 실시한 결과와 환자가 자가 측정 한 결과가 동일한 경우는 환자들의 연령이 보다 젊은층으로 평균 연령이 56세인 반면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환자들은 평균 연령이 65세였다.

검사 중 10개가 잘못된 검사 결과를 보였다. 즉, 10명이 필라멘트를 느꼈다고 응답했지만 전문 의료진이 재검사했을 때 필라멘트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이 자가 검진을 하고 당뇨 의료진들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하여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카빌레시의 족부 절단 예방(LEAP) 프로그램의 지휘자인 밥 롤프슨(Bob Rolfsen)과 그의 연구동료들이 말하기를, “당뇨병이 생긴지 여러 해가 지나면, 당뇨인들은 자신들의 당뇨병에 관하여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인슐린주사를 맞고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감각 손실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원문